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議會의停會 結局議會解散?

一

昨二十一日 深夜 廣田內閣은 突然 議會의 停會를 奏請하야 二十二日부터 二日間 停會의 命令을 나리게하얏다. 理由는 昨二十一日 再開議會의 劈頭 貴衆兩院에서 一齊히 政府攻擊의 演說을 行한 때문에 議會의 反省을 求하기 위함이다. 政、民兩黨이 議會劈頭 政府 攻擊의 論陣을 펴리라한것은 開會 數日前 政、民兩黨의 强硬派가 會合決議한것으로 미루어보아 豫測햇든바이나 막상 議會가 再開되자 貴族院에서는 濱田國松氏가 政府의 政治、外交、財政에 關한 全般的 失敗를 猛烈히 攻擊하고 特히 濱田氏는 軍部의 行動이 政治推進力의 一角이 되엿다고 餘地업시 攻擊하야 政府로서는 到底히 堪忍할수업스리만큼 되엇섯다. 이리하야 院內閣議에서 寺內陸相은 即時、解散을 主張하리만큼 興奮하얏든 模樣이나 畢竟 各政黨出身者도 만코、政黨과의 折衝餘地를 생각하야 爲先 二日間의 停會를 奏上하얏든것이다.

二

그러면 이二日間에 果然 政府 對 議會의 妥協은 成立될 것인가. 妥協을 아니치못할 條件은 두가지가 잇다. 하나는 政府側의 立場이니 政府가 解散을 斷行하면 明年度의 三十億이란 尨大한 豫算은 成立치안는다. 不得已 今年度豫算을 踏襲하고 나머지 近十億은 追加豫算으로 來特別議會에 協贊을 어더야할터인데 그때 果然 追加豫算의 協贊을 어들지는 保障키 難하다. 何故오하면 解散後 總選擧를 한結果 現內閣을 支持할政黨은 하나도 업는 때문이다.

둘재는 政黨의 立場이니 萬一 議會의 解散을 當하고 總選擧를하야 政、民兩黨中 어느 政黨이 第一黨이 되드래도 政黨內閣樹立은 不可能할지오 亦是 軍閥 乃至 官僚를中心으로 政黨聯立하야 組閣될것은 明若觀火이다. 그러므로 選擧에 資金의 巨額을 要하야 解散을 回避하는 代議員들은 現狀維持로 나갈 意思가 적지안타.

三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二·二六事件以前의 생각이오、二·二六事件以後는 軍部、政黨 모다 鞏固한 確信과 決意를 가젓다. 即 軍部는 旣成政黨을 牽制해서라도 政治推進의 原動力이 되라하고、政黨은 이 機會에 軍部를 牽制하야 議會政治 政黨政治를 復歸하랴한다. 昨年 特別議會에서 展開된 齋藤隆夫氏의 演說은 政黨이 얼마나 議會政治 復歸에 全力을 다하는가를 알수잇다. 三十億이란 空前의 大豫算案이 提出되고 對中、對蘇外交가 失敗된것을 機會로 現政府를 攻擊하랴할것은 議會政治家들의 노치지 안흐려는 努力일것이다.

四

이 글을 쓰는 刹那 東京電은 議會解散을 決定하얏다 하니 一方 政黨에 對한 威脅이라고도 볼수잇스나 軍部에게 左右되는 큰 現內閣이 政黨의 反對로 總辭職하지는 안흘지며、政黨 또한 이에 屈服함도 不可避의 事實이 아닌가. 政黨側 [illegible]信任案을 提出하야 [illegible] 보이지 안흐니 結局解散은 不一은 來總選擧後 特別議會까지 不一氣가 [illegible]한 때문이다.

原田熊雄男 園公에報告

【東京電話同盟】西園寺公秘書原田熊雄男은 二十二日午前九時東京發列車로 興津에 赴하야 兩院空氣와및 政府의 停會詔書奏請事情等을 西園寺公에게 報告하엿다

濱田國松氏演說은 明白한國軍侮辱
部內影響으로보아默視不能
寺內陸相重大決意

【東京電話同盟】寺內陸相은 官邸에 撤歸한後 二十一日 午後十一時五十分 今日議會에서의 重大空氣에 關하야 奏新聞班長을通하야 左와 如히 重大決意를 表明하엿다

今日은 아즉 무엇이라고 말할수업다 그러나 自己로서는 기피 決心한바가잇다.

【東京電話同盟】濱田國松氏演說에 關하야 陸軍側에서는 本會議散會後 院內政務委員室에 梅津次官 磯谷軍務局長以下 政府委員全部參集하야 對策을 協議하엿는데 二十二日衆議院本會議에잇서 寺內陸相으로부터 發言하기로되엿는데 該問題에對하야는 速記錄을 精査한後가아니면 明確히 말할수업다고하고

一、陸軍은 決코議會를 侮辱할라하는것은아니나 民意를 一層國政에 反映시켜서 從來의 [illegible]政이 發展시키는것을 念願하고잇다는것은 屢次의 聲明에잇서 議院制度調査會懇談會席上에서 表明하고 잇슴에도不拘하고 濱田氏는 아직도 軍이 獨裁政治의 推進力으로서 任하고잇다는 意味를 述하엿다

二、또廣田首相에對하야 一層기뿐決意가업다면 軍部를 抑壓할수업다는 旨의意味를 述하엿다

三、또軍部는 國際聯盟을離脫한際下賜하신詔勅中『文武職分에 恪循하라』는데 反한다하고가는意味를 述하엿다

以上은 明白히 國軍을 侮辱한 것이다 이리하야서는 默視할수업다 또部內全般에 與하는影響도 一考慮하지아니하면아니되다고생각한다 따라서 二十二日의本會議에잇서서도 寺內陸相은 濱田氏에 對하야 적어도不當하다고 認定되는 言辭는 取消를 要求할것이다

解散이나總辭職 馬場藏相談

【東京電話同盟】閣議散會後馬場藏相은 如左히 말하얏다

如斯한 結果가 發生하지나아니할가 最初부터 念慮하엿다 如何든지 明日閣議 연後가아니면 말할수업스나 解散이나 總辭職이나 그어느便이 될것이다 그러나 解散도 總辭職도 아니할지도모른다 只今까지 아즉 豫測할수는업다

政策檢討시키든지 總辭職斷行하라
政友會緊急總務會決定

【東京電話同盟】政友會에서는 二十二日午前十一時 院內에서 緊急總務會를 開催하고 鳩山總務以下 各總務 安藤幹事長이 出席하야 安藤幹事長으로부터 同日 鈴木總裁와 島田農相과의 會見顚末及 前田鐵相과 幹事長과의 折衝經過를 詳細報告하고 黨의 態度에 對하야 여러가지로協議하엿는데

一、政府가 國務大臣의 演說에 對한 質問應答의途中 突然停會의 措置를 取한것은 不可解이다

一、따라停會의 期間滿了와 同時에 質疑를 繼續하야 政府와 政黨과의 主張을 國民아페 如實히 提示하야 國民의 公平한 審判을 待함이 當然한 處置라고信한다

一、政府가 이當然한 擧措를取할수업다고하면 政府는 其責任을負하고 總辭職할것이다

一、그런데 政府가 議會에 對하야 解散으로써 臨하려하는것은 非立憲的態度로 國民도 聽從치안흘것이다

따라 政府는 速히 議會로 하여금 政策檢討를 開會케하든지 不然이면 總辭職을斷行할것이다

라는意見이 大勢를 制한바 幹事長은 閣議出席의 島田農相에게 其趣旨를 通達하엿다

社會大衆黨 解散待機指令

【東京電話同盟】社會大衆黨은 二十二日午後四時 黨本部에서 書記長及 有志代議士會를 開催하고 協議한 結果 解散을 豫想하고 全國各府縣支部에 對하야 左의 指令을 發하엿다

政府는 危機에 瀕하엿다 解散必至인바 我黨進出의 絕好期가 到來하엿다 諸君은待機하라

解散은不可解! 總辭職이至當
現政府에少數支援者도업다
貴族院方面의意向

【東京電話同盟】政府가 議會解散을 斷行하기로方針을 決定한데對하야 貴族院各方面에서는 左와如한 意向을 가지고잇다

政府는 마침내 局面打開를爲하야 解散을 斷行키로 決定한模樣인데 이것은 甚히不可解이다 民政、政友兩黨을 爲始하야 國民의 代表인 衆議院各派의 態度가 一致하야 現內閣에 反對하는것은 明白한事實이오 一方貴族院으로보드라도 最大會派인 硏究會의非公式代表라할만한 渡邊千冬子의 質問演說도 亦是 現內閣의施政方針에 자못不滿을表明하고잇다 그리고 第一陣을마튼 公正會의 阪谷芳郞男 交友俱樂部의 小久保喜七氏 同成會의 菅原通敬氏等은 모두 現內閣의 施政에 反對하는 意味의 質問演說을 行하기로되엿다 假令政府가 一部少數의 支援者를엇고잇다고하면 解散에 依하야 信을 國民에게 問할수도 잇스나 如斯히 貴衆兩院이 一致하야 反對하는以上 總辭職을 斷行함이至當하고 解散云云은 차라리 後繼內閣이 行할問題이다

後繼內閣組織하고 解散斷行이當然
政黨의分解作用을行하야新黨結成이必要
現下政局에 對한一部의見解

【東京電話同盟】軍部對政黨의 正面衝突로 議會는 二日間 停會되여 中央政界는 稀有한混亂에 陷하야 政局의推移는 감작이 豫斷을不許한다 這間에잇서 望月、山崎의 昭和會領袖는 政界官僚의 一部에 內閣은 即時總辭職을行하고 後繼內閣의 首班으로하여금 閣僚를 人物本位로 銓衡케하야 後繼內閣에 依하야 解散을 行케하고 時局收拾을 圖케함이 最善의 方法이라는 見解를 갓고잇다 이論者는 政界는 바야흐로 政黨政治를 어데까지支持하려는 現狀維持派와 軍部와協力하야 現狀을 打破하고 革新政策을 實行하려하는 現狀打破派와의 二派로나누워 잇슴으로 此際 廣田內閣은 깨긋이 總辭職을 斷行하고 後繼內閣의 首班은 政界의 空氣를 洞察하고 旣成政黨에서 代表閣僚를 入閣식히지말고 現狀打破派內에서 人材本位로 閣僚를 銓衡하야 이 新內閣에 依하야 解散을 行하고 政黨의 分解作用을 行하야 新黨을 結成케함이 가장 適切한 策이다 그리고 後繼內閣首班으로서는 此際 近衛公을推擧함이 最善의 策이오 次善의 策으로는 末次大將을 推擧함이 可하다고한다 그러나 右와如히 新黨運動과 併行하야 後繼內閣首班으로는 宇垣、大角、南三大將을 中心으로 자못 暗躍이 繼續되고잇다

內務省首腦部 總選擧對策協議

【東京電話同盟】內務省은 二十二日午前十時 官邸에 鍋島湯澤兩次官 警保局長 早川警視總監等이 參集하야 首腦部會議를開催하고 同時에 地方局에서도 選擧施行에關한 對策을協議하엿는데 總選擧期日은 衆議院議員選擧法第十八條第三項『衆議院이 解散命令을바든境遇에는 總選擧는 解散日부터 三十日以內에 此를行함』을 適用하고 解散直後 潮內相으로부터 臨時閣議에 諮하야 最後的決定을 지을터인데 普選法施行以來 四回의 前例에徵하야 解散當日부터 起算하야 第三十日을 選擧期日로하야 二月二十二日 解散說에는 二月二十二日에 되리라고觀測된다 그리고 今回는 選擧法改正後最初의 選擧人名簿其他에 [illegible]이잇섯스나 今回에는 [illegible] 十二月二十五日의 [illegible]名簿가 잇슴으로 [illegible] 其準備에 着手하야 [illegible] 「帝國議會解散」이라는 [illegible]를 發하는 同時에 地方長官會議[illegible]를 召集하기로되엿다

政黨과妥協排除코 끗까지解散斷行
旣成政黨은現狀維持에汲汲
寺內陸相의決意强硬

【東京電話同盟】寺內陸相의 決意는 現在와如한 旣成政黨과行動을 함께하야서는 到底히 躍進日本의使命인 庶政一新의 斷行을 期待할수업고 또 陸軍部內統率의 責任을지기도 困難하다는 信念下에 政府와旣成政黨의妥協을 絕對排除하고 旣成政黨으로서 飜然 從來態度를 고치지안는限 斷乎解散할것이라는 强硬決意를 굿게하고 閣議에서도 一路解散斷行을 主張하고 部內一般도 또 陸相의 態度를 다是認하야 어듸까지 陸相의 主張을 貫徹하기를 待望하고잇다 그리고 部內一般의 本問題에對한 見解는 大體左와如하다

旣成政黨態度로보아 解散斷行은 當然한處置요 차라리 그느진것을 感하는터이다 旣成政黨은 庶政一新을云云하나 그實은 現狀維持에 汲汲한形便으로 現狀打破를 願치 안는것은 明白하다 帝國內外의現狀으로보아 現狀維持를 企圖함은 滿洲國의 特殊權益擁棄를 意味하는것이다 如斯한事態는 九千萬國民으로서 甘受치 안흘것이다 萬若 如斯한 退嬰的方針을 願치안는다면 맛당히 現狀을 打破하야 庶政一新을 斷行치안흐면 안된다 아마 九千萬國民도 退嬰日本을願치안흘것이다 果然 그러타면 現在 旣成政黨이 如何히 多數를 擁하엿다할지라도 國民의 眞正한 代表가아님은 明白하다 따라서 此際 斷乎解散하야 旣成政黨의 猛省을促하고 躍進日本의 使命遂行에 相應한 人材를 議會에 보내는것이 가장 肝要할것이다

議會解散과 財界方面의觀測

政府는 二十二日의 臨時閣議에서 議會를 解散하기로 決定하엿는데 議會의解散에 對하야 朝鮮의財界方面에서는 如左히觀測하고잇다

議會의解散은 너무나 突然이엇슴으로 財界에 미치는 影響도 只今곳 알수업스나 豫算의不成立에依하야 增稅案과 尨大豫算의 解消가 어떠한모양으로 經濟現象에 나타나는가는 자못注目된다 이것도 總選擧의 結果如何한 後繼內閣이 出現하는가 이것이 決定되기까지는 財界로서도 靜觀할수밧게업다 總選擧의 結果는 信을 國民에 뭇는다는 軍部를 如何한 形式으로 國民이 支持할가 支持하지안는가 判斷키 困難할것이나 假令 軍部黨이라고 하는것이 된다해도 旣成政黨이 議會解散의 性質上 자못有利케될것이라고 생각된다 어떠튼지間에 팟쇼的의 統制經濟主義가 今後이에 依하야 全혀 解消되엿다고는 생각되지안으나 統制主義가 發展途上에서 不意事에 端을發하야 誘導한것은 財界로서 愼重히 考慮할것이다

軍의强硬意見이 解散에誘導
政黨分野變動乎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二十二日 閣議에서 解散方針을 決定하고 二十三日閣議에서 正式으로 決定하기로 되엿는데 政府로는 現在 何等與黨이업시 解散을 斷行하야 意見一致된것은 軍部가 現在의 政黨에 反省을 求함에는 解散以外에 他途가 업다는强硬意見을 갓고잇기때문이오 廣[illegible]

黨出身閣僚辭職後도
選擧終了까지現狀維持
政友、黨出身閣僚에解散不同意指示
辭職안하면脫黨必至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二十二日臨時緊急閣議에서 斷乎衆議院을 解散키로 方針을決定하고 政黨方面의態度를 기다리기로되엇는데 이 結果 가장注目되는것은 前田 島田 賴母木 小川等 政黨出身閣僚의 態度와 其進退인데 이들黨出身四閣僚는 各其所屬政黨에 對하야 該解散을 求하게되리라고 觀測된다 政友會에서는 代議士會에서 出身閣僚에對하야 解散에 同意치안키로 決議하엿슴으로 前田、島田、兩閣僚는 爲先 國務大臣을 辭職하고 黨으로 復하든가 그러치안흐면 脫黨하게되리라고 觀測된다 그리고 民政黨에서는 아직 黨의態度를決定치안헛스나 아마 民政黨도 解散에 同意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안홈으로 이도亦是 賴母木 小川兩相이 辭職하게될것이다 그리고 이에對한 善後措置로는 萬一 政黨出身四閣僚가 辭職할境遇에는 아마 廣田首相其他의 閣僚가 四大臣을 兼攝하고 選擧終了까지 그대로 內閣을 持續하던가 總選擧後의 情勢等을 考究한然後에 徐徐히 善處하리라고 觀測된다

京畿道警察官異動

開城署長 神田實夫
任道警部
命高等課勤務 道警部補 佐藤福吉
命永登浦署勤務
命西大門署勤務 吉本不可欺
命保安課勤務 高等課勤務 淺木幹雄
命鍾路署勤務 西大門署勤務 井上敏人
補水原署長 保安課勤務
補開城署長 鍾路署勤務 黑沼力彌
命警察部警務課勤務 水原署長 藤田乙治郎

十一年度 米實收高
六千七百三十餘萬石 九百萬石增加

【東京電話同盟】農林省發表 昭和十一年에잇서 米收穫高는 六千七百三十四萬二千七百二十三石으로 此를前年收穫高에 比하면 九百八十八萬五千七百四十石(一割七分二厘) 前五個年平均에比하면 八百十九萬六千三百九十六石(一割三分九厘)이 增加되엿다

夕刊後市況 廿二日

◆朝取短期◆

	後引	高價	低價
朝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鑛	—	—	—
同新	—	[illegible]	[illegible]
朝石	—	[illegible]	[illegible]
日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北紙	—	—	—

◆東京短期◆

	後引	高價	低價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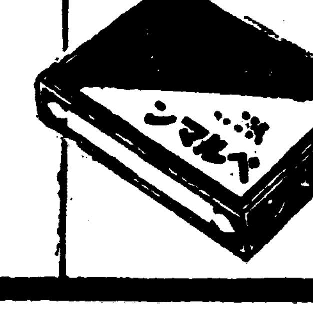
	後引	高價	低價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淺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帝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鋼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氣配◆

大新	八八二〇 (四〇低)
鐘新	二三三〇〇 (不變)
日產	八〇〇〇 (不變)
東新	一五〇〇〇 (一〇低)

◆橫濱生糸後引◆ 當限 九〇一〇〇 先限 八八二〇〇

◆福井人絹後引◆ 當限 八四五〇 先限 八二〇〇

喘息에 담기침에 ベルマン
中毒性업는 新鎭咳劑
ベ(베)ル(루)マ(만)ン
기침과痰을어세고發作을鎭和식히여心臟을强하게中毒性업서安全한良劑

全國藥店にあり

分讓 果樹苗木
京城府外纛島 久次米園藝場

チドリ椿香油 チドリ椿ポマード
黑髮로 젊어지는 養毛 호르몬配合의

謝恩廣告 金堤郡鳳南面月城里 李基千氏
右氏는恩情이만흔분으로서 昭和四年十月鴻亭里에現住家垈와畓四十餘斗落을貸付해주는等 流離放浪할身勢에빠젓슬때 精神的으로物質的으로 偉大한愛護와鴻恩을베푸러주어 今日은更生의土臺를세우게되여 右氏에게物質報答은全部맛추엇스나다시紙上으로通하야속깁히謝恩의意를表하나이다
昭和十一年一月 金堤郡鳳山面鴻亭里 鄭明述 白

鋸製造卸 大工道具 卸値段表進呈
專門製造直賣、信用廉價日本一
木手道具、理髮器械、金物一般
大阪市東區神崎町四一 武村製作所
電話一七八五番 振替大阪七六四七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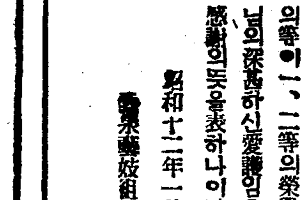
光武劇場
一月二十一日부터三日間延期興行 劇團文秀星公演 連日滿員謝禮!
料金引下提供! 大人階上三十錢均一 階下二十五錢均一 小人 [illegible]
時代劇 林仙主藝團每日交換
悲劇 [illegible]
◆一流樂士 [illegible]
上往十三 天勝一行 [illegible]

國民中學講義錄
緊急處分 大投賣斷行

左記國民中學全科講義錄十二卷十二冊合本定價十二圓인대今回整理를爲하야但只一圓五十錢에投賣함(前金注文送費卅一錢代引은藥書로申込次第荷造發送共一圓九十五錢)送付할것(一切品切되기前에至急注文하라!(萬一不合時는返金)
中學全學期 十二卷十二冊 一合本을단지 一圓五十錢에投賣
立身出世中學卒業자에서는
中學卒業後上級學校에못가지만고하고...
緊急處分으로內容見本은업다。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西中島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瘰癧 淋巴腺 腺病質에 推奬하는 療法과效果
[illegible]

天下珍味 黃州苹果直賣
果物商大歡迎! 仲間利益排除 本農園產品直賣出(在庫豐富)
舊年末 特別히十二月二十萬箱子에限하야는廉價處分
黃海道黃州驛前 黃州農園

當選謝禮

鍾路券番藝妓組合十二月分時間代成績發表에際하야저의等이一、二等의榮譽를得함은오르지地方여러先生님의深厚하신愛護임을鳴謝하압기玆에紙上으로써感謝의意를表하나이다
昭和十二年一月
鍾路券番藝妓組合藝妓 孫春子
同 李雲仙

鼻耳의病

코와귀病에 바르는藥
코와귀가압흐면頭腦를낫부게함으로大端치안을때에이藥으로속히곳치십시요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大木耳鼻藥
發賣元 大木合名會社

問題의投書筆蹟比較

문양으로하여금 꼼짝달삭을 못하도록 죽엄의길을 취하게한것이 아래의 필적감정 사진이다。원편이 소위 의문의 사람으로부터 날러온 투서의 원본이고, 바른편이 이 투서를 밧고 박은혜(朴恩惠)사감이 기숙사생 일백오십명에게 두차래나 필적조사를한것 중에 가른필적이라고 감정된 문양이쓴 필적이다。그리고 맨아레 사진은 문양이 최근에쓴 시조의필적이나 투서의필적과 문양의 두필적을 비교하여본다면 그 다른이 얼마나큼을 알수잇슬것이다

白日下에드러난 問題의"殺人投書"

筆蹟同一은千不當萬不當

梨專當局責任如何?

루보=동무의 돈을 빼여썻다는 텁업는 루명을 뒤집어쓰고 그억울한 원죄의 시커먼 거미줄을 혀여나올길이업서 드듸여 더러운세상을 이저버린다는듯이 원통한 죽엄을지은 리화여전(梨專)문과생 문창숙(文昌淑)(二一)양의 사건에대하야 바야흐로 세상의 물의가 물끓듯하고잇는이때 문양의 친아버지가 이십일일밤차로 멀리제주도(濟州島)로부터 입경하야 문양으로하여금 죽엄의길로 부득부득모라쫏츤 그문제의 투서의 필적을 그아버지의 손으로 백일아래잡아내게되여 이에전연 그투서의 필적과 문양의 그것이 판이하다는사실이판명되게되엿다 설령 문양의 지머진 혐의가 문양의 탓이라고 손치더래도 그로하여금 죽엄을 자추케한 책임은 학생의 과실을추궁하는 해괴한 그방식과 최후까지 변명의 길을막어버린 그회경이 직접판련을안가질수업겟거늘 한울며 억울하고 원통한 루명과 중압을바닷슴이 명백하게된이상 내딸을잘 가르치고 고히길러달라고 학교에 맷겻던 이아버지에대하야 학교당국은 과연무엇으로 대답을하려는가?무슨도리로 차듸찬 시체가된 딸자식을 부등켜안고 얼빠져잇는 그아버지의 심정을위로하여주려는가? 원한을품고 죽어진 문양의 넉을어떠케 안식의 나라로인도하여주려는가? 이는 리전당국교육방침의 근본적맹성을재촉하는 문제일뿐더러 일반교육게에 크나큰 교훈을 남겨주는 것이아닐까?

文孃은瞑目하라!

投書內容도立證하는 歷歷한그의潔白

最後까지檢事態度로서臨한 駭怪한學校側態度

문양의아버지의 상경으로말미아마 문양을죽게한 그문제의투서가 백일하에 나오게 되엿는데 그필적이 별항사진에 게재된바와가티 누구나 언뜻보아 첫눈에 문양의 필적과는 판이한것을판단할수잇는것일뿐더러 그투서내용을 읽어보면 누구나 웬만한 머리로서도 문양의 투서가 전연 아닌것을 짐작할수잇다 그것은 그편지내용에 문창숙양이그 돈을 내여쓴것이 아니라는 적극적변명의 사실이업는 점이다 투서내용은 다음에 기재되는바와가티 투서발신인 즉장본인인 제삼자의 량심적가책의 고백과 사죄의말로 시종되엿고 단지편지후반에 잠간 지나치면서『선생님 아모조록 널리 容恕하여주시길빕며 두분동무에도 비는바입니다…』라고 하야 두분동모라는 표현으로 동업자인 주덕순(朱德順)이와 혐의는 문창숙(文昌淑)에게 사과를 하엿슴에 불과하다 만약에 문양이 이투서를계획적으로하엿슬것가트면 결코 문창숙이가 혐의가업다는점을 력설하지안코 그저자연스럽게 나가다가 문양의 기름도업시 두분동모라고만 하엿슬리가 만무할것이다 그러면 학교당국은 무슨까닭으로 무슨원인으로서는 이투서의내용을 자연스럽게 해석하지안코 철저하게도 최후까지 친애하는 내 학교학생을 혐의자 또는 피고의 자리에 상정(想定)을 하야 세우고 귀검사(鬼檢事)의 태도로 림햇든가? 이중 삼중으로 까지넘겨잡아 해석을 부처"적"의"구성"에만 한번 철저 하엿든가? 하물며 한번 보아 판단할 그필적을 가튼 문양의 필적이라고 가혹한 판단을 어떠케내리는가 잇섯든가? 만번 필적이갓고 천번투서의 임자가 문양인것을 알엇슬지라도 내사랑하는 제자를 전교학생압헤서 한거름 나가서는 전사회압헤서"여도"(女盜)라는 락인(烙印)을 참아어떠케 사정업시 찍엇든가? 또는 찍고시퍼햇든가?또 그가 도적이라고 가정하자 학생들의 생활을 행정하고 학생들의 교양을 책임마튼 학교당국자로서 이적은문제를 해결할 무슨방법을 찻지못하야 일백오십명 기숙생을 전부 혐의자란 상정(想定)을하고 공개석상에서 전부의 필적감정을 두차례식이나 햇슬가? 이런방식으로 적발한"도적"을 무슨방법으로 교도(敎導)를 하고저햇든가? 어느교육제도에서도 차저볼수가업는 학교당국의 이처사가 남아잇는 문제중에 가장 두렵고도 중대한문제로 이는맛당히 학교당국이 학부형을 향하야 또는 사회를향하야 명백하게 또는 책임잇게 해석할엄숙한"수수꺼끼"일것이나

投書全文

서대문(西大門)우편국의 십륙일 오후세시로부터 네시의 일부인이 찍혀잇는 투서의 전문은 다음과갓다

大峴町梨花專門寄宿舍 朴恩惠先生

朴恩惠先生님 저는 오늘이야 良心을 터노코 두어자적습니다 어제밤선생님과 오늘 校長先生님의 말슴에 저는 只今까지 良心의 苛責을바더오다가 一生의 不安을업새고저하야 午後에 本館四層에서 하나님께罪를 빌고나니 마음이 좀노입니다 제가二十二日에 朱德順의 도잇는것을보고 마귀에홀려 밤에여러동무와가티 舍監室로 내려가서 차저서씻습니다 그러나 只今까지 良心이찔려 참아 말슴못하고잇다가 깨끗한 마음으로 붓을들엇슴니다 先生님 아모조록 널리容恕하여 주시길밥며 두분동모에게도 비는바입니다 오직예수님이 只今부터 제良心을 깨끗이씻처주심을 비는바입니다 돈은一個月期間을 주시길 바라오며 다만예수님이 저와一生을가티해주심을 빌면서 갓난히 쏫치니이다

一月十五日 門下生

休紙에써서버린 苦悶詩一篇

投書"鑑定法"으로본다면 이것도計畫的일가?

투서나 필적은 남을보이기위한 문짜이니 또백번양보 하드라도 발표할것도아니고 남에게 보일것도아닌 헌조히쪽에 적어휴지통에집어던진 문양의생전에 이문제를두고고민하는시(詩)한편이 발견되엿스니 동무들은 다평화스럽게잠이든뒤에 밤느게 좁은가슴을 혼자서태우면서 기숙사방의 한구통이에안저 순결한처녀의 량심!나오는그대로의심경을 시(詩)로옴겨 그대로 휴지쪽가티 버린 이 한편시에도 문양이"계획적으로한 투서"와가튼 거즛과 둔사(遁辭)를 부려두엇슬가? 그시구에 나타나는 가슴에서터저나오는 한말두말 그것이 그의 진경이아니고 무엇이랴『감로수를찻는 사막사자를 오-우리는 그들에게 잡혓다녹나는것업시가것노란』이러한 글발이문양의 억울한 원죄의 심회를여실히 웅변하여주는 것이아니고 무엇이냐 그시고(詩稿)와 원문은 다음과갓다

> 나는 우러노라 머리를업싸안고 휘한한몸내다 보는 내눈에 어둠이싸힌다
> 모-든것을 부시고 붓지르고 나는 꼿어시가것노라
> 甘露水를찻는 砂漠의獅子를
> 오! 우리는 獅子에게잡혓다
> 無能함을알면서도 나는 부르지젓노라 힘것
> 늘러까니-이것이꿈이엿든가

누이筆蹟아닌것은 一目에瞭然

文孃男兄 昌鳳氏談

문양의 원혼이 아직도 정처업시 중천에떠잇슨지 사흘만에 그의 아버지가 상경하야 문제의그『살인투서』를 백일아래 잡아내여 그필적이 전연 문양의 필적이 아닌것이 판명된 이십이일아츰 문양의시체가 누어잇는 시내 의전병원(醫專病院)시체실에는 꼿한다발 조용한개달리지안코 다만 문양의 아버지와 오빠를 비롯한 몃사람의친척과 고향사람서너명 모다수심에 잠겨서 슬슬히 안자잇섯고 학교서무(庶務)리기복(李起福)씨가 남아잇슬뿐으로 생전에 그처럼만튼 리전학우들도 문양의 죽엄을 조문하는그림자를 차질수업섯다 문제의 필적이 판이한것을밝혀낸 다음 그의오빠는 자못흥분된 어조로 다음과가티말한다

첫눈에 밤서 누이동생필적과 다른것을 다정할수잇섯습니다 상식적 안목으로 밤서 다툼 그필적을 가지고 충분히 해결짓고 말수잇는 문제를 웨 그와가치 엄우하게 두번세번씩 필적조사까지 하지안흐면 안되엿슬가 그까닭을 알기어려웁니다 다른학생들의 필적전부를 어떠틴수는업섯습니다 고향사람들중에는 이필적을 전문감정인에게 감정을 하라고 권고한다마는 그러케하면 죽은 누이동생이 다시사라나겟습니까 어찌겟습니까 아프로나 학교당국이 이번사건에다 소깨다른바잇서 남아잇는 수백명학생을 지도할때에 좀더 신중하고 상식적처리를 하얏스면은 오히려내누이죽엄이덜 원통한것갓습니다 내누이가혐의가 업다는것을 발견한이때에 우리로서는 비통한가운데에서도 적이 위안을밧는바입니다 시체는 기차편의 판게다로 이십삼일에야 옴겨가겟습니다 누이동생으로말미아마 학교는몰론 일반사회에 대하야 미안을 끼친것을 참으로 죄송하게생각합니다

太田胃散 藥效如神 四時常備의胃病靈藥 東京 太田信義藥房 各地藥店에셔發賣

敎育家는이러케본다

會計는職員이 自殺은안된다

崔奎東氏談

신문에서도읽고 여러가지소문도 들엇습니다 그후백은 어찌되엿든지간에 이러한일이 나지안토록하자면 장부양식(帳簿樣式)을 정확하게하여두어야 할것입니다 학생에게 회계를맛기다는것은 자치적으로 한다는테잇지만 여러가지 잘못이생기쉬우니까 전임학교회계가 마련보게하는것이 조흘줄압니다 그러한문제가 발생되엿슬때 학생전체를 의심할수도 업는터임으로 조사는해서 별일업는 정도안으로는 그후백을가리워야하겟지만 그가라고 캐는정도가 어느정도를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러고자살이라는데 대해서는한생게군은 늘제몸이 제몸이 아니라 가정의몸이요 사회국가의 몸이라는생각을하여서 제마음대로하지못한다는 관념을갓고잇서야될것입니다 자살을한다는것은 어떠튼 안될일입니다

人格을안밋고 會計를맛겻든가

李淑鍾氏談

조선에 하나밧게 업는 녀자최고학부에서 그가튼 불상사가 일어난것은 교육계를위하야 유감된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회계를 맛길적에는 그의훌륭한 인격과 인망을 밋고한 처사라고볼수잇는데 좀더 온건한 방법도 잇섯스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인도한번더생각하고 거름을옴겻든것이조치안햇슬가한다

죽엄을찻기전에 다른方法업든가

孫貞圭氏談

사실을 자세히모르고 신문지상에서만 보고서 지금무어라고 말슴할수도업습니다 그러나 이문제는 문양이 죽엄을 찻기전에다른방법이 업섯슬가요 가엽슨 죽엄입니다

『責任지고말한다! 가튼글씨아니다』

鑑定의權威 李漢福氏談

무기명으로 리화여자전문학교기숙사 사감박은혜(朴恩惠)씨에게투서한글씨와 일백오십명의 기숙생을 모아노코 박사감이 일일히 글씨를 씨워본끄테 문창숙양의글씨가 투서한글씨와 갓다고단정한 그글씨와두가지를 글씨감정의 권위자인 리한복(李漢福)씨에게감정해본결과 두글씨는 전연 딴판으로 다른사람의 글씨라는 판단을 어더다죽 리한복씨는 다음과 가티말한다

글씨라는것은 잘쓰거나 못쓰나 제각기 특증이 잇서서 아모리 남의 본을 떠서 쓸랴하여도 되는법이 아니며 또한아모리변체로 달리 쓸려하드라도 그쓰는버릇이 잇서서 다르게쓸수 업는법이다 이제 이두가지글씨를 노코서 비교해보건대 아주완연히 다른것을 단번에 알수잇다 전문가가 아니고 누구가보더라도 얼른 분간할만큼 아주 다른글씨다 문창숙양이 쓴글씨를보면 가령『라』짜나 『다』짜는 어느것이든지 점찍는것을 올흔편으로 빼처올렷는데 소위투서에쓰인 글씨는 어느것이나점을 바로 또박또박 찍어서썻다 그밧게『朴』짜나『心』짜나『德』짜나『氏』짜나『宿』짜나『本』짜나『如』짜등 몃자를 보아도 가튼 글씨가 아닌것을 넉넉히알수 잇거니와 이글씨 전부를 한자씩 일일히다 마추어보아도 한자도 가튼획법이 업다 그러므로 나는 책임지고 아주가튼 글씨가 아닌것을 분명히 말해둔다

彈丸機『아라하밧드』로

물탄서의 조인(鳥人)『도레-』씨는 이십일일 오후네시사십오분(일본시간 이십일일오후?시사십오분)으로 유프라테스(?) 하반(河畔)의 바드라를 출발하야 파사만(波斯灣)을 거처 다시 해안선을따라 동쪽으로 전후열시간비행한후 이십이일 오전다섯시반(일본시간 이십이일오전여덜시반)영령인도(英領印度)의 서해안 카리치에 도착하엿다 『르·부르쥬』비행장을 출발이래 사십시간 오십사분이다 그리고 동씨는 『카라치』에 도착한후 겨우세시간 휴식하엿슬뿐으로 재차비행을 계속하야 이십이일 오전여덜시반(일본시간오전열한시반)『카라치』를 출발하야 영령인도의 『아라하밧드』로향하엿다

破産危機에逢着 市內五十餘釀造業者

續 京城酒販杜塞問題

地方酒移入防止의 法的根據가頓無 販賣統制는中止할方針

석간계속=인천, 수원, 마산, 진주(仁川,水原,馬山,晋州)등원근각처에서 드려오는 외래주로인하야 경성양조업자와 경성조선주판매회사가 비상한 고경에빠져서 이대로나가면 시내오십여업자들은 거의 파산상태에빠질지경이며 판매회사도 역시이현상으로는 도저히 경영할도리가 업다는데 이에대하야 회사와업자의말을 드르면 다음과갓다

古庄稅務當局長談

동국장은 아래와가티말한다 경성에 외래주이입으로 하야 업자와 판매회사가 아울러곤난을 밧는것은 사실이외다 그러나 이것은 엇지할도리가업습니다 어디에대하야 법적으로 소정의계규측이 업슴으로 이입을방지할 도리가업슴니다 가사 판매회사가 유지할수업시된다하드래도 방관할수밧게 업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은 유일한권리를 가지고잇는업자들의 자각이 필요합니다 쌀대업는경쟁으로 서로타격을 밧는것은 극히어리석은일이기합니다 경성각도국관내에 주류판매통제를 할작정이엇스나 여러가지 정세로인하야 중지하얏습니다

大同之患

葉釀酒業者談

외래주이입으로 업자와 회사가 아울러 고경에 빠저잇다함은 별항과 갓거니와 이에 대하야 시내 양주업자모씨는 다음과가티말한다 판매회사가 생긴 이후로 외래주이입이 무척 늘어서 업자와회사가 가티난관에빠저잇는것은 사실이외다 양조업자들은 각각유지문제까지 생기게됨으로 판매회사지정가격보다싸게하야 비밀히 직접파는곳이 상당히 만흔모양이외다 외래주가 드려와서 압박하는 원인은 약품을타서 술맛을조케하야가지고 가격을 경성양조품보다 싸게판매하는까닭이외다 이약품문제는 수차경찰당국에서도 조사발견한것이외다 하여간이대로 가다가는 시내양조업자들은 거의다 파산상태에빠질것이며 판매회사도 유지할수업슬것이외다

共靑事件續報

第一日은 十四名審理

【咸興支局電話】제이전화=이십이일함흥지방법원에서열린 제삼차공산청년동맹사건의 제일회공판은 오후두시부터 계속하야심리를 개시하엿다 먼저 한철환(韓鐵煥)의 경력과 전향(轉向)여부를 무럿는데 그는전향하엿다고확답하엿다 오늘심리를 바든사람은 열네사람으로 그중에서 전향을성명한사람은 열세사람이다 이어서 오후네시오분에 심리를끗마치고 페정하엿는데명 이십삼일에 심리를 계속하게되리라고한다

少年禁酒令實施

促成會宋氏가 南總督에陳情

이십일일오후한시에 미성년자금주법실시촉성회의 총무로 잇는 송상석(宋相錫)목사는 남(南)총독을 방문하고 동법안실시를요망한다는뜻의 진정을 하엿다 동씨가 진정하게된리유는 방금심의실에 부의(附議)중인 동법안이 심문지를 통하야 심의의 반대론이 전한까닭이라고한다 송목사의 진정의 골자는 조선은 민도가야지안흔것 풍교문란을 방지함에 이법령이필요한것등 오개조로되여잇는데 남총독도 이에대하야 호의를 보엿다한다

金鍾煥에七年役

서울로 직업을 구하려와서길을몰르고 헤매어는 순진한시골여자두명을 취직시켜 준다고 감언리설로 꾀이어 후미진곳으로데리고가서 가진은전부를 강탈한후에 그들의 정조까지 룡락한 경기도부천군 문학면연수리(富川郡文鶴面延壽里)김종환(金鍾煥)(三一)에 관한 강도강간피고사건공판은 이십이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산하(山下)재판장주심 주견(注見)검사관여미테 열렷든데 재판장은 검사의 구형대로 그에게 징역칠년판결을내리엿다

人生의再逢春

百補丸의效力은이러케굉장합니다

一、氣血이俱虛하야 貧血이되고 形容이창백하고 全身이 虛弱한분
一、性慾이줄고 手足과 下초가 恒常冷하고 肢節腰痛으로 고생하는분
一、口味업고 消化不良과 체증,속병,등으로 고생하는분
一、肺가 不足하고 元氣와 活氣가업고 허리가압흐고
一、神經이 衰弱하야 머리가묵업고 精神이흐리고 記憶力이 不足한분은 早老할症狀이요 長壽못할 前兆이오니 一日速히 百補丸을 服用하여 씩씩한 靑春이되시요
一、筋骨이든든하여지고 氣血이旺盛하여지고 힘이생기고 順借力이됩니다
一、消化不良 체증 속병가튼것은 어느때업서젓는지 알지도못하게 업서집니다
一、눈이밝아지고 精神이조와지고 皮膚가윤택하고 血色이조와집니다
一、全身五장六부를 다잘補하야 잠말完全히 陰陽雙補하야 體重이增加되고 陽氣가 大旺됩니다
一、過飮過色人 ホルモン不足으로因한腦、心神經衰弱人께는 더욱速效합니다
一、長久連服하면 精力絶倫하야 一生을 無病健康한몸으로 不老長壽할수잇습니다
一、年久咳소와 오랜淋疾도 消蕩됩니다
一、男女老少를勿論하고虛弱한분에게는 第一입니다

藥價 一劑 特價 拾圓 重用 貳拾圓
無料進呈 三劑以上共同注文周旋하시면 周旋人께一劑無料進呈
藥注文送金은 左記三處中 便宜한口座에 一、振替京城五番 二、朝鮮銀行本店內平和堂 三、商業銀行本店內平和堂

京城府堅志町(五一)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話光六三二番·振替五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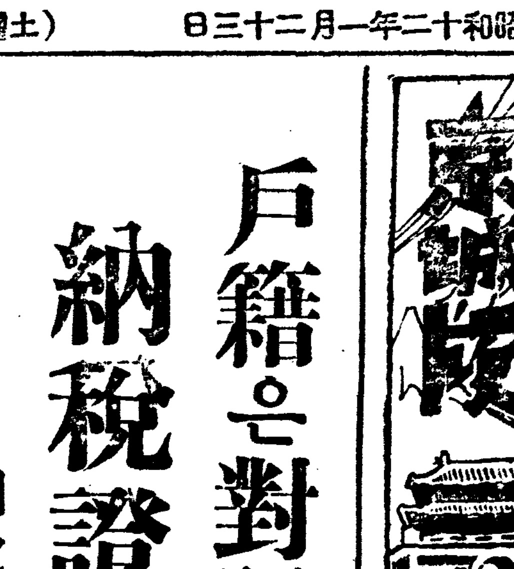
日本政府特許局登錄
神人道師葛玄眞人의秘方藥
補陰·補陽·補腎·補肝·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百補·不老更少年仙藥
根本的回春·壯陽·强精·强筋·强骨·借力·平生無病健康長壽劑
百補丸

堂々第一·다들수업는事實

藥業界有史以來百補丸이 最高賣上記錄
그原因은效力斷然第一인까닭!
京城四大郵便局의發送數字가證明

●朝鮮에서過去 數十年間 여러가지 新舊補藥이續出하야 各處에서 큰廣告도 만히 한일이잇지만은 그 賣上高에 잇서서는 百補丸이斷然!朝鮮藥業界有史以來 最高賣上의 超記錄을내고잇습니다 이것은 京城四大郵便局의發送數字가 事實을證明하는바이니 속이려야 속일수업고 疑心하려야 疑心할수업는 堂々한 事實입니다
●百補丸이 이러케 비빨치듯 만히歡迎맛는 理由는 무엇보다도 第一效力이 卓越하고 第一信用이 큰까닭입니다。
●그러므로 百補丸은貴族,兩班을비롯하야 京鄕各地名士諸氏의 最大賞讚과 推奬愛用을밧는바이며,萬人이 다투어服用하고 感謝感謝하는바입니다
●世上에서 廣告만은 누구든지 마음대로 크게 낼수가잇지마는,그卓越한藥效에對하여는 洋의東西와 學博士들勿論하고 누구나마음대로할수업는것입니다。百補丸이 朝鮮에서 第一만히팔리고,第一信用만코,最大의歡迎과 最高의推奬을밧는것은 오즉 百補丸이 補藥界에서 有史以來에 그效力이가장 絶大偉大한까닭이며 廣告가큰까닭이아닙니다。
●百補丸은 이와가티 效力으로나,信用으로나,賣上으로나,무엇으로나 斷然補藥界에 堂々第一인것이속일수업는 事實로서 確定되엿습니다

이로써 服藥家의 疑心도 一掃되엿습니다



土地文券든 冊褓를紛失

이십일일 오후 다섯시반쯤되여 시내 정동정(貞洞町) 덕수공립보통학교 (德壽普校) 선생 고복남(高福男)씨가 종로(鍾路) 화신백화점(和信)이층 주단포목부에서 물건을 골르는 사이에 거래노앗든 책보를 어떤자가 감쪽가티 훔쳐갓다고한다 그책보안에는 어린아이들입학과 서대문금융조합(西大門金融組合)저금통장일통과 토지소유권 등이 드러잇섯다고하며 범인은 종로서에서 수사중이다

戶籍은對照만으로 納稅證明은不要
納稅額調査는內部的으로
市內普校入學手續

금년봄 경성부내 각공립보통학교입학지원자 처리문제에 대하야 이십이일오후에 경성부류본학무과장(柳本學務課長)에게직접 알어본결과 어제본보 조간(朝刊)에 보도한바와는 조금틀린바가 잇스므로 이에다시보도한다 즉입학원서는 이월일일부터 이월일일까지 경성부학무과에 제출하면 조코 호적등본은 필요치안코 다만그입학원서로써 호적에 마초아보기로되엿스며 납세증명은 입학지원자측에서는제출할 필요가 업고 학무과에서 필요에 따라 세무과(稅務課)에조사해보기로 할터이라한다 그리하야 각학교에 적당히배당하기로 되엿다한다 입학원서용지는 방금 백이고잇는 중이므로 입학을 지원할사람은 이월일일부터 경성부학무과나 동부 룡산 영등포등세공출장소에 가서 어더다가쓰면조타한다

撤去令바든住民
仁川市內에八百餘戶
□□土地熱의膨脹과함께□□
細窮民들에벼락

【仁川】인천은 부구확장과 각종시설로서 토지열이 팽창되고 잇슴을 기화로하야 악덕지주와 "뿌로카"들이 졸출하야 그피해가 적지안흠으로 인천서보안계에서는 이에대한 단속을엄중히하고 잇다함은 기보한바와갓거니와 당국의엄중한 단속으로 마음대로 하지못하는그들은 이제는 자기소유 토지주민들의약점을 잡어 철거령을나린후 철거를 강요하기 마지안타가 주민들의 애원에따라 주민을위한다는 미명하에 철거령만은 취소하야주고 그대신 지료를 인상하야 은연중 자기목적을 달하고잇다 이제그실례를보면 작년말에 화정(花町)오백여호에대한 철거요구와 산근정(山根町)삼십삼호 송현정(松峴町)이십호 룡강정(龍岡町)오십여호 도합칠백여호에 철거령을 비롯하야 지난십일에는 룡강정 삼십여호에 그지주 조모(曺某)로부터 금월말내로 철거를 요구하엿다 이를 전부합하면 전시를통하야 철거장을받고잇는주민이 팔백여호라 아모리 자기에소유토지일망정 전기와가티 철거령만 발하는것은 실로사회적 문제라고한다

京畿道管內의 傳染病保菌者

소화십이년도 경기도내전염병방역진(防疫陣)의 기초공작이라고 볼수잇는 경기도내거주자의전염병 보균자집계가 이지음도경찰부에 드러왓다

이것은 소화십일년말현재의것으로 적리보균자는 일본내지인이 일곱사람이오 조선사람은동대문서(東大門署)관내에 한사람이 잇슬뿐이다 그다음 장질부사 병균보균자는 일본내지인이 열일곱명에 조선사람은다섯명이다 그다음파라지부쓰는일본내지인이 십칠인에 조선사람이 일곱명이다 이상으로보아 전보균자 오십사인중에 일본내지인이 사십일인으로칠십륙『퍼-센트』나된다 그리고 이상통계가운데서 동대문서관내 뚝섬(纛島)에잇는파라지부쓰보균자와 장단(長湍)읍내의 적리환자 한명을제한외의 오십이명은 전부경성부내거주자로 당국에서는 이들보균자의 변소소독과 기타지령한준수사항을 잘직히는여부

西海岸吐出荷物
運賃減下를陳情
金剛丸의關釜連絡以後로
京釜線運賃減下問題

【仁川】기보=관부련락선금강환(金剛丸) 사천도의 대형선이항해를 시작하게되자 다량의화물을소화식힐것을생각하고 철도국에서는 경부선에한하야 화자운임을감하실시하얏슴으로 지금까지서해안각항으로 회착이줄되든미곡이 전부철도편으로직송케되얏슴으로 이와한가지서해안각항은사활문제에 당면하고잇나니함은 기보한바와갓거니와 이에대한대책을강구코자 부심중에잇는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곡물협회에서는 지난 이십이일오후이시부터련합역원회를개최하고 철도국에대하야 국당국자대표의리저하에 대책을 로의하엿다는대 『제일은일본내지선임감하를 파신(阪神)선박업자에게요구하엿스나 가능성이희박함으로 최후로철도당국에대하야 경부선화물운임감하된것과가티 인천(仁川)진남포(鎭南浦) 군산(群山)등지에 회착되는 부근기차편운임도 감하하야 달라는진정을 철도당국에 제출키로하얏다는데 동리유는 서해안의상게항구들 희생식히고라도 부산(釜山)항만을 번영식히고자 경부선운임만을 감하하지한 당국의 처사에대한 반대이라는데 이는 운수업자들의 사활문제로 당면하얏슴으로 최후까지 운동키로결의하얏다한다

四郡聯合으로 指導生研究會
十五日抱川普校에서

【抱川】농촌교화를 목적한포천교육회(抱川教育會)에서는 지난십오일 오전열시부터 당지공보교당에서 포천 련천 양주 가평(抱川 漣川 楊州 加平)사군련합지도생 지도강화연구회 (四郡聯合指導生强化研究會)를 회장인 포천군수 박현모(朴玄模)씨 사회로 각군수 시학 교장등 사십오명출석하에 모든 연구발표를 맛치고 익일인 십륙일은 각지도생 모범부락인 신촌원우동(新村院隅洞)등지를 시찰하고서 간담회로 산회하얏다

社會教化講演會開催

【楊州】이번에 총독부에서는각군에 강사를 파견하야 사회교화에 관한강연을 행하게되엿다는데 양주군에서도 좌기와가티강연을하기로 되엿다 일반의만흔 청강을 바란다고한다

一、日時 一月二十四日(日曜日) 午後一時
一、場所 議政府小學校
一、演題 精神作興에關한事項
一、講師 總督府囑託 申鉉泰氏
(用語는朝鮮語로約二時間)

北村商街에 街燈施設計畫
仁川商工協會에서

【仁川】인천상공협회는 우리상공계를위한 유일무이한 단체로서 과반창립총회를 개최하엿나니 함은 기보한바와갓거니와 지난 이십일일오후칠시부터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총무부회를 개최하고 창립벽두의 첫사업으로서 북촌상점가에 가등시설을 결의하얏다 현재인천의 가등시설을보건대 남촌일대 궁정(宮町) 본정(本町)등은 가등이 충분히시설되야잇서 불야성(不夜城)을 일우고잇섯스나 북촌만은 암흑장면을 보여줌뿐임으로 동협회에서 솔선하야 서경정(西京町)으로부터 창영정(昌榮町)입구까지 가등시설을 결의하얏다는데 이와한가지 암흑면의 북촌도 광명의 조명을 보게되리라는대 동회에서는 그외에 상업리사로리동오 류창호(李東旿 柳昌浩)량씨를 선거한후 아시경영등 조사를 상업리사에게 일임한후 동십시경에 폐회하엿다한다

仁川聖渦間航路
又復船客爭奪戰展開

【仁川】지난시월이일에 팔미도(八尾島)근해에서 동행선 록도환(鹿島丸)이 침몰되야 선객륙십여명을 수중고혼이되게 한사건은 아즉도 우리의 이목에새로울뿐아니라 이것이 과연불가항력의 사변이냐 또는회사측의 실책이냐하는 문제로 조선초유의 해사심판까지 열게까지하엿다 동심판이 이십구일로발두하야 세상의 이목을 이끌엇든바 또다시 동항로 인천성연(仁川聖渦)간 동행선간에 또다시선객쟁탈전을 전개하고잇스며 심하면 종전선임 일원이든것을 오십전내지사십전에까지 인하하야 맹열히 경쟁하고잇다 이항로는 조선해양사(朝鮮海洋社)와 인천기선회사 충남(忠南)기선회사의 소속선이통행하고잇든곳으로 전번의 사변도역시 선객쟁탈경쟁에 가장큰원인이 잇는것이니만큼 인천서보안계에서는 항로가 항로이요 문제가문제이니만큼 방금엄중조정중이라한다

좀도적이야기세개

이십일일 월급날은 범의(犯意)를촉진하며 젊은사람의마음을울게하는날인가? 본정서에 드려온행낭뒤끝녹이야기세개

때문ㅣ 거슬름돈사기ㅣ부내황금정(黃金町)에잇는 모신문사배달보조 동석렬(董錫烈)(一七)은이십일일오후 여덜시쯤에 장곡천정(長谷川町)이십오번지 왕은성(王恩成)의 호떡집에 드러가서 호떡네개를 먹은후 거슬름돈사원팔십전을 먼저바든후 오원을 먼저주엇다고 떼쓰다가 본정서에 류치되엿다

◇……부내다옥정(茶屋町)일백사십오번지에서 시게포를 하는리점석(李點錫)(二〇)은 이십일일오후열시쯤에 상점에서『카루모틴』륙십개를 먹고 고민하는것을부근 지성의원(至誠醫院)에다려다가 응급수당을 가하엿스나 생명이 위독하다고 하는데 그가 자살하려든원인은 종로권번모기생에게 정이들어 집안물품을 보지안타가 그날집안싸움을하고 세상을비관한까닭이라고한다

◇…부내 무교정(武橋町)륙십일번지 음식점우춘관(又春舘)의 전배달부집금원인 리완구(李完九)(二二)는 이십일일밤중 가개문을 따든뒤에 안방수제금고(手提金庫)속에 드러잇든 일백오십삼원십전을훔처가지고 도망하려다가 여페서자든배달에게 붓들려 서본정서에 넘이왓다

中東軍力戰不及 崇商軍先勝
番外께임엔卒業生軍勝捷
京平中等籠球初夜

朝鮮中央基督教青年會體育部主催로열리는 京平兩都市中等學校籠球界의覇者! 京城代表中東學校와 平壤代表崇仁商業의 第三回定期籠球對抗戰第一日은 昨二十二日午後七時五分부터 鍾路中央基督青年會『코-트』에서 滿都籠球팬의 注視속에열리엇다 番外께임인 京城市內 中等學校卒業生팀對在學生팀戰으로開始된바 三十四對二十一로 卒業生팀이 勝捷하엿다 뒤니어 中東과崇商兩軍의 入場式은 中央基督教體育部 張權氏의 司會로열리어 同大會會長 尹致昊氏의 開會辭가잇슨다음 緊張과 興奮속에 決戰의幕이열리엇다 戰勢는 開始부터 激烈하야 자못滿場의 興味를자아내이드니 崇商軍은 無敵의陣容을보이며 中東軍을누르고 四十八對十七이란 엄청난스코어로 第一戰에快勝하엿다 이리하야 今二十三日 午後七時부터 第二次戰을 行하기로되엿는데 只今까지의戰績은다음과갓다

▲第一回=平壤崇仁商業學校對京城中東學校一勝一敗無勝負(於京城)
▲第二回=平壤崇仁商業對京城中東學校 崇商連勝(於平壤)
▲第三回=平壤崇仁商業對京城中東學校 崇商一勝(於京城)
(寫眞 上은 競技光景 下는兩軍의 入場式)

崇商48 中東17
【前13…5 後35…12】

【戰況】崇商對中東戰은 同午後八時五分부터 田盛鎮、宋基学兩氏審判아래開始된바 兩軍이 極度로緊張한가운데 展開되여 開戰四分까지 得點할機會조차업드니 崇商의 趙得俊君이 機先을制하고 골直下로 스롯으로 첫골을어든後 朴榮大君連다라 點하야 七對零으로 崇商斷然리-드 中東軍이에屈치안코 十一分에 金萬壽君의 점프숏과 李龍覺君의 自由投로追及하야 七對三되엿다가 崇商의安昌鍵君의 점프숏과 趙得俊君의『롱숏』보기조케 드려가 前半은 十三對五로崇商리-드한채 後半에드러가자 崇商軍自由自在한『패스웍』으로 中東軍의 後陣을崩壞하야 連續得點하니 中東軍은焦燥한빗을보이며 『롱숏』을 連發하엿스나 確實性업는 投射인지라 끗까지 苦戰할뿐이드니 드듸여 四十八對十七로 中東軍敗하얏다 (께임三十分間)

反	前	後	【崇商】		【中東】	前	後	反
1	0	4	李緒國	F	李龍覺	1	4	0
2	4	14	朴榮大	F	鄭元澤	0	4	0
				F	金萬壽	2	2	1
0	6	7	趙得俊	C	孫仁權	0	2	2
1	1	6	石道順	G	崔昌欽	2	0	2
0	2	4	安昌鍵	G				
0	0	0	李明贊	G				
0	0	0	邊勝睦	G	金永喆	0	0	1
4	13	35				5	12	6

卒業34 (18 16 … 10 11) 21在學

【第一次戰】番外께임인 卒業生對在學生戰은 同日午後七時六分부터 李文鎬、申光浩兩氏審判下에 開始된바 結局三十四對二十一로 卒業生팀이 快勝하엿다

反	後	前	【在學】		【卒業】	前	後	反
2	5	4	崔志善	E	尹恒燮	10	0	2
				E	姜日東	0	6	0
				E	金潤昊	0	0	0
1	0	0	李明天	E	李聽斌	0	5	0
2	4	2	黃材三	C	秋尙律	2	0	2
4	0	1	申鳳浩	G	林用淳	2	0	0
1	0	4	孫晩植	G	宋在膺	0	2	2
2	1	0	王玉伊	G	韓龍雲	2	0	0
				G	成炳慶	0	5	0
12	10	11				16	18	6

朝滿對抗氷上
滿洲代表決定

第二回朝鮮對滿洲氷上對抗戰은 來三十一日에 鴨綠江銀盤우에서 擧行키로되엿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奉天放送局에서는 이날의 競技實況을放送(午後一時半부터 同四時까지)하기로되여 漸次로 人氣는沸騰하야 實力伯仲한 兩軍精銳의 必死的爭霸는 볼만할 날리는接戰을 展開할것으로 豫想된다 大會種目은 既報한바와가티男子五百米 千五百米三千米、五千米、一千米릴레 女子五百米、千米、五百米、三千米、千六百米릴레及 하키、피거로決定하엿는데 이번 大會는 압호로 도라올冬季올림픽의 記錄向上을 目標로女子三千米를除外하고는 모두『세파레ー트코ー스』를採用하야『타임레ー스』를 行할터이라한다 그리고 滿洲側代表選手는다음과가다

▲스ー피드部=男子大川(新京) 山下(大連)朴淵哲、三代、石塚(撫順)河村安達、濱、岡部、牛島(奉天) 木谷淸、中安(東京)女子部宮崎、宮崎 이사、木下(安東)木谷、江島、汾陽、今村 村山、司(奉天)

全天津과平壤 定期戰

【平壤】全東洋籠球界의覇者 全天津軍과 平壤籠球幹部聯盟에 兩者間 定期戰을計畫中이든바 交涉이 圓滿히 進行되여 待望의第一回戰을 二月下旬天津에서 擧行키로되엿스며 第二回戰은 平壤에서 開催키로되엿다 全天津軍은 組織以來 敗戰을 맛보지못하엿다는 名實共히 東洋籠球界의 王者로서 昨年度에도 全上海軍을 五對一로 全香港軍을 八對一로 擊破하엿고 昨年平壤과의 對抗에는 一勝一敗의 戰績을가지고잇다 그리고 天津에 派遣할選手『멤버ー』는 追後發表하기로되엿다

女子氷上
今日、淸凉里에서
第三回全朝鮮

朝鮮女子體育奬勵會主催의第三回 全朝鮮女子氷上競技大會는 今二十三日 午前九時半부터 淸凉里驛前링크에서 開催할터인데 이날은 女流氷上界의花形인 梨專의 孫仁實孃을 비롯하야 京保의名將 李令愛孃과 中保、同德、女商等의 各校代表選手 六十餘名이 出戰케되여 盛況을 豫期하고잇다는바 當日의 競技種目은 二百五十米、五百米、千米、千五百米、千六百米릴레ー等으로 오픈·코ー스에서 타임레ー스를 行하기로되엿다한다

全日本氷上延期

昨二十二日부터 諏訪湖에서行할 豫定이든 全日本氷上競技大會는 連日의暖氣로因하야 氷質이 極히不良함으로 하로를延期하야 二十三日부터 開催하기로되엿는데 二十三日에도 諏訪湖의 結氷狀態가 良好치못하면 場所를 變更하야 霧ケ峰링크에서열기로되엿다

★本日發賣★ 二月號 婦人公論

家名への反逆 崩壞する家族制度の中で若き女性は何を求めてゐるか?・女給になった男爵令孃賀島旭子さんの場合……窪川稻子

☆珍らしい鳥(子に語る母の讀本)……野上彌生子
女の武器・室生犀星
☆私生兒と母子保護法……青野季吉
☆胸を病む娘に(病氣は罪にあらず)……秋田雨雀
☆時事總評……下田將美

新戀愛論 第七章 杉山平助
南米より紐育へ……藤村夫人 島崎靜子
一つの心境……鳩中雄作
女性月評……山川菊榮

蔣介石·宋美齡·張學良をめぐる秘めたるロマンス……平野嶺夫

☆冬山遭難物語……深田久彌
☆さよなら懷しのファンへ……京町みち代·草香田鶴子·江戸川蘭子·井草鈴子
小野宮吉氏夫人として新劇苦難の道を踏越えて來た彼女が、亡夫にそそぐ哀切追慕の泪、今日誕生の道に進まんとする彼女の雄々しい宣言

はじめて語る私の半生……關鑑子

父藤村と和解するまで……島崎翁助

若き日の嘔吐

☆血統の不安……式場隆三郎
☆ターキーの爲のレヴュー詩 薔薇戰爭……西條八十
☆薄命の佳人 九條武子夫人の最期……松岡讓
★就學兒童への健康な家具
★中年婦人の髮の若返り法

婦人に多い不感症の治療法……醫博 鈴木甚吉

動亂支那の現狀……(太田宇之助)

實話 子供の偏食はどうすれば矯るか?
▽私はかうして矯正した……吉本千枝子
▽偏食の爲め成長を失つた子……子
▽健康への道……三木壽子
批判 我が子を子と呼べぬ母……波多野勤子

十二世紀最大の戀・英帝御退位の眞相
シンプソン夫人傳 H·E(米)ウイルソン 大江專一譯

婦人公論 文藝欄
入選小說 爆發……筑紫義子
小品 嫉妬……品
小品 ひとりぐらし……電話
短歌壇……窪田空穗選
俳句欄……久保田万太郎選
詩壇……北原白秋選

☆カラーセーヒーク ブラの雲……進軍
☆シガーヨッツ ルーヴの ツャんち

コント あたしのお兄さま……初戀 仲町貞子 健ちゃん……英美子

流行歌手……長田幹彦
練獄聖爭……里見弴
笑ふ戀人……尾崎士郎
落葉日記……岸田國士
大阪……藤沢桓夫
藥指に降る雨……佐藤八郎
虛榮の市……森田たま

夫の爲に身を賣つた 無産黨議員の妻の告白
身を賣つた私は間違つて居たか……渡部町子

大飛躍の二月號、到る所絕讚の嵐!! 今月號も賣切れの恐れあり、すぐ書店でお求め下さい。

定價50錢
東京·丸ビル五階 中央公論社發行

000814

輸出檢查實施 中小業者에打擊

人絹織•고무靴•洋襪

設備不備로不合格品이만어 輸出數量減少는必至의形勢

朝鮮產 人絹織物、고무靴、洋襪은 旣報한바와 가티 重要物產同業組合令의 適用을受하게되는同時에 重要輸出品으로 正式指定되야 前記業者는 同業組合을 組織하고 組合에서 輸出檢查를 行하게되는바 全朝鮮에 檢查所를 五個所設置하기로되엇스며 이에對하야 總督府에서는四萬二千七百八十五圓의 補助를與하기로되엇다 이리하야 前記製品은今後 輸出檢查를 施行하지안코는 輸出을할수업게되엇다 現在朝鮮內의 人絹織物業은 三十餘工場 年產額이 三百四十二萬圓 輸出額이 百七十萬圓이며 고무靴業은 六十二工場 年產額이一千六十六萬圓 輸出額이 八十五萬四千圓 洋襪業은 三十餘工場 年產額이 二百四十二萬圓 輸出額이 十七萬三千圓인데 現在人絹織物業에잇서서는 大規模의工場이 大部分이나 고무靴業及洋襪業에잇서서는 朝鮮人經營의中小業者가 大部分을 占하고잇는바 此等 中小業者는設備가 不完全하니만큼 一朝에 製品의檢查를 實施하면 不合格品이적지안케날것으로 打擊이 적지안흐리라고한다

그런데 右의檢查實施로 因하야 將來朝鮮品의 對外的信用은 어느程度로 保障될것이나當分間은 輸出額의 減少를보게되리라는데 그主要한原因은 不合格品이 는는것과 從來日本內地不良品이 朝鮮을 經由하야 輸出되는것이 업서지게되는것 等이라한다

豆粕大不足 肥料配合에影響

新義州農會의計畫量實現難

【新義州】朝鮮農會平北肥料配合場에서는 昨年의 實績에鑑하야 今年에는 六十萬叺製造를 目標로 目下百五十名의 男女人夫를動員시켜晝夜로 製造中인데 主要原料인 豆粕이 大不足되여 各方面에 注文을發하야 購入에努力中이나 各方面모다 原料不足으로 旣定計畫에 多大한 影響을 밧고잇다한다

禮山簡易商事好績

【禮山】忠南禮山 洪城兩郡에서는 有志의 發起로 兩郡民의購買 販賣機關으로 簡易商事組合을 組織하고 客年 十二月부터 京南線插橋驛前 同組合營業所에서 營業을 繼續中인바 現組合員이 三百名 出資金萬餘圓으로 業績이良好하다고한다

江原道의產繭額 六十六萬五千貫

【春川】江原道의 產繭額은 全朝鮮에서 第二位를 占領하고잇다 重要한生產地는 中部 江原道인 春川、麟蹄、洪川、橫城、原州郡等인데 昭和十年度掃立枚數 一一八、五六五枚 產繭額六四五、三一〇貫에對하야 昭和十一年度掃立枚數는 一二二、九三一枚 產繭額六六五、四四六貫으로 實로 二〇、一三六貫의 增收를보게되엿는데 江原道의 產業中蠶業이 重要한地位에잇다

팔프增產

北鮮製紙新工場 急速實現될機運

팔프關稅를 引上할 計畫인데 그稅額은 現行百斤四十一錢에서 八十錢으로 大巾引上하는것으로 現實性을 帶하게될것이다 그런데 이供給狀勢를보면 가장待望되는 滿洲國의 팔프工業은 運遲하야 進行을보지못하야 僅僅 東滿팔프의 工場着手가잇슴에 不過하다 國內的으로도 製紙팔프는 飽和點에잇서 팔프不足은 當然 人絹製紙界의 原料飢餓를 招致할 狀態에잇다 此中에서 北鮮製紙化學工業은 第一期計畫을 實現하야 今春早터 操業을 開始하얏는데 原料木供給及 新規工場設置에잇서 가장 實現性이잇서 이에 北鮮製紙의 新工場計畫은 意外로急速히 實現을 보게되지안홀가한다

薄荷栽培增加

產額五十三萬圓 今後一層奬勵할計畫

工業原料作物로서 將來 크게期待되고잇는 薄荷의 栽培는 年年 其栽培를 增加하야 昭和十年에잇서서는 八百十二町九段步 其生產額五十三萬圓에 達하고잇는데 이를原料로하는 薄荷油薄荷腦의 加工業으로 主要產地인 全南松汀里에 目下 薄荷工場이 建設되어 今年四月頃부터 創業開始할豫定으로 그栽培는 將來益益有望하게되리라인데 總督府에서는 工業이 地方分散的 增產計畫을 樹立하야 薄荷의 栽培를 指導奬勵하기로되엇다

產業短信

長湍製炭好績 増殖에一層拍車

【長湍】長湍郡에서는 農家의副業으로 林產物인木炭生產을 奬勵하야 왓섯는데 昨年末木炭產地인 大江、江上大橋、小南、長道五個面에서 今年에木炭四萬四千二百俵를 生產하고저 奬勵에着手하야 增產에 一層拍車를 加하야着着實行에 邁進하고잇다고한다

▲元山 元山商業株式會社의 第十六回定期總會는 十六日午後一時부터 그事務所에서 金永根氏司會下에 開催하고 事業報告 其他議事를 進行한후 다음과가티 監查役二名의改選이 잇슨다음 同六時에 閉會하얏다고한다 監查役 鄭積箕 同 金利鉉

▲金海 金海郡下東面草亭里에도 金海產業組合支所를 設置하야 十八日부터 事務를開始하얏다

織物移入稅遞減 實施延期를陳情

織物協會의陳情書內容

織物移入稅遞減의 時期延期運動을 行하고잇는 朝鮮織物協會에서는 會長山村銳吉氏의 일홈으로 去十九日總督府殖產局長財務局長에게 陳情書를 提出하얏는데 그內容은 如左하다

陳情의要旨

近近 施行되려는 織物移入稅率의 遞減은 朝鮮內機業上에影響하는바 甚大하야 惟獨겨우萌頭하야온 織物工場의 經營을危殆에 瀕케할뿐만아니라 延하야서는 將來의 斯業의 隆興을阻害할것은 明白함에加하야 다시副業的 機業의 裝額書促進하야 農村振興의 國策에違背하는結果를 招來할念慮가 만타고 思料되므로 朝鮮의 產業開發과農村振興의 見地에서 그施行時期를 延期하기를 바란다

理由

現下朝鮮의 織物生產의形態는 副業的及工業的二大分野를 形成하고잇는 特異性을 有하므로機業에 對한 諸般의 問題는單只工場經營者에 影響함에 끗치지안코 副業的 機業에 從事하는農村多數의 民衆에 關係하는바甚大함은 刮目할만한것으로 이제 昭和十年度의 朝鮮產織物의價額을 基礎로 織物移入稅率三分의一 低減이二生產分野에 及하는 影響을 示하면 其金額은大槪左表와 如하야 總額百七十八萬一千圓의 巨額에 達하는生產原價의 低減을 意味하고 이를 反當으로 換算할지라도 其織物의 品種에 依하야 平均十

	副業生產 產額	副業生產 原價低減額	工場生產 產額	工場生產 原價低減額
綿織物	六、八三三、〇〇〇圓	三三三、〇〇〇圓	一九、八二四、〇〇〇圓	六七三、〇〇〇圓
絹織物	五、一九〇、〇〇〇	二六五、〇〇〇	六、五七七、〇〇〇	三六、〇〇〇
麻織物	六、六〇八、〇〇〇	三三三、〇〇〇	七六四、〇〇〇	三九、〇〇〇
人絹織物	一、〇五二、〇〇〇	五九、〇〇〇	六、三三八、〇〇〇	三一五、〇〇〇
合計	一九、七六三、〇〇〇	九八八、〇〇〇	三三、五九九、〇〇〇	八七三、〇〇〇

一錢乃至二十八錢의 原價低減을 하지안흐면 內地製品과의 對抗이 不能한 結果로되므로 이미現時에잇서서도 採算이 有利치 안흔 實情에잇슴에 鑑하면 그影響의波及은容易히窺知할수잇다

大抵 朝鮮의 機業은 勞銀이低廉하고 織物原料及餘剩勞力이相當히 豐富한것等 充分한 發展의 素地를 有함에 不拘하고過去 오래동안 特히 工場生產不振의 情態를 繼續하야와서갓가히 昭和十年度의 例에 依하면 生產에 對한 生產率은 僅三十六%에 不過하는 悲況에 잇다 그러나 그原因은 多多잇슬지나 朝鮮의 職工養成의 困難其動機性及 能率不良或은 機械의 販賣 又는그修理等顧慮의不備等에 加하야機業에 對한分業的施設이 皆無한것等 事業의經營上 여러가지 障碍가 잇슴에 臨因하는바 크다고볼수잇다 그러나 朝鮮의 織物需給의 現勢만으로볼지라도 나아가 機業의 隆興을 圖함 必要가잇슴은 더말할것도 업는바로 從來 副業的機業振興이 叫唱되고잇슴뿐만아니라 最近 旣存工場의擴充、新設工場의增加가 顯著하야 漸次 斯業發展의 氣運에잇슴은 一로는 其必要性에依하는것으로 正히當然한 歸結로 向하고잇는것이라고 稱할수잇고 前記 機業經營上의 不利한 諸點은 敎育의普及、或은 工業에 對한 理解의增進、또는 斯業의 增加等에 依하야 解消될 性質의것이어 下의 工場經營者의 多數는當面의 큰 犧牲을 甘受하면서 期待를 將來에두고 其大成에 苦鬪하고잇는 結果라고 볼수잇슬것이다 그러므로 不遠 移入稅率의遞減을 實施함에잇서서는 朝鮮內의 織物工場中 特히 中小工場의 存立은 甚히 困難하야질뿐만아니라 또한 副業的機業을 衰微시키게되어 農村經濟에 影響하는바 클것은 吾人이 憂慮를禁치못하는 바이다 이를要컨대 朝鮮의 機業의 基礎가 確定한時期에 到達하지안흐면 移入稅率의 遞減은 斯業의存立을 危殆에 瀕케할念慮가 充分하야其影響은民衆多數의 우에도 波及될것이므로 當分 그實施를 延期하기를懇願한다

日用商品市況

▲鐵物 最近 物價의騰貴는 衣食住 어느部面을 勿論하고 一齊히 暴騰을示하고잇는바 그中에도 軍需工業과 密接한關係에잇는 鐵材의 騰貴는 顯著하야 最近數月來에 四、五割의 暴騰을보고잇다 이에따라서 各種鐵製品도 昂騰되고잇는바 今後의 市勢에對하야 보면 最近商人側에서 鐵物의先高를 豫想하고 投機買를多分히하는 傾向이잇서 그는單純한 實需에依한暴騰이아닌만큼 이것을天井으로安定市勢가 나오리라는 豫想이有力하다 그리고 一說에依하면先低되리라는 豫想도잇스나 現在 日本의鐵需給關係로 보아서先低는되지안흘것으로보히며 그러타고하야서 飛躍的暴騰의 直後이만큼 그리 더昂騰은하지안흐리라고한다 이제 二十二日의各鐵物市勢를보면 如左하다

◆亞鉛引平板 幅三尺長六尺
▲二十一番一級品 各一枚에
赤門 一·四〇
羽矢 一·四〇
호무로루 一·四〇
地球 一·四〇
▲厚板
二十九番 一·六〇
二十七番 一·九〇
二十五番 二·四〇
二十二番 三·三〇
二十番 四·八〇

◆亞鉛引小浪板 各一枚에
▲三十一番
六尺 一·〇六
七尺 一·二六
八尺 一·五五
▲二十九番
六尺 一·三七
七尺 一·五五
八尺 一·八八

◆亞鉛引大浪板 各一枚에
▲三十一番
六尺 一·二八
七尺 一·三六
八尺 一·五五
▲二十九番
六尺 一·三七
七尺 一·五五
八尺 一·八八

◆丸釘 百斤入一樽에
七五 三·三〇
一吋 三·三〇
一吋半 三·二〇
一吋四分三 三·一〇
二吋 三·〇〇
二吋半 三·〇〇
三吋 三·〇〇

◆鐵條網 一卷에
大卷(約三百間) 七·五〇
小卷(約百五十間) 八·五〇

◆白鋼板 百斤에
六寸幅(東京製) 一三·〇〇
二十番 一四·〇〇
廿二番 一五·〇〇
廿四番 一六·〇〇
廿六番 一六·〇〇

◆丸鐵 十貫에
一分五厘 九·六五
二分 九·四〇
二分五厘 九·〇〇
三分 八·八〇
四分 八·五〇
五分 八·五〇
六分 八·五〇
七分 八·五〇
八分 八·五〇
一寸 八·一〇
一寸二分 八·一〇
一寸四分 八·一〇
一寸六分 八·一〇
一寸八分 八·一〇
二寸 八·一〇

◆八角鋼 十貫에
六分 九·三〇
八分 九·三〇

◆삽 一打에
特等기린 一一·〇〇
一等 象 一〇·〇〇
二等 旭 八·一〇
콩크리ー트用 九·三〇

◆鐵力板 一圈에
三枚入 四·〇〇
幅二吋長二尺吋 〇·四八
枚賣 〇·四八

◆鐵線 十貫에
六番 三·二五
八番 三·二五
十番 三·四五
十一番 三·四五
十二番 三·五〇
十四番 三·六〇
十六番 三·八〇
十八番 三·八〇
二十番 三·五〇

◆亞鉛引鐵線 八十斤一九에
六番 一七·六〇
八番 一七·七〇
三、二番 一七·六〇
十番 一七·八〇
十一番 一八·〇〇
十二番 一八·〇〇
十四番 一八·〇〇
十五番 一九·〇〇
十六番 一九·五〇
十七番 一九·八〇
十八番 一九·八〇
十九番 二〇·〇〇
二十番 二〇·五〇
廿一番 二〇·八〇
廿二番 二一·〇〇
廿三番 二二·〇〇
廿四番 二三·〇〇
廿五番 二三·五〇
廿六番 二四·五〇
廿八番 二六·五〇
廿九番 二七·五〇

◆亞鉛引鐵線 百斤에
四吋 三〇·五〇
四吋半 三〇·五〇
五吋 三〇·五〇
六吋 三〇·五〇
七吋 三一·〇〇

◆鐵板 三尺六尺十貫에
五厘厚 一〇·〇〇
七厘五厚 九·三〇
一分厚 一〇·五〇
一分五厘厚 九·三〇
三枚物 一〇·五〇
四枚物 一〇·五〇
五枚物 一〇·五〇
六枚物 一〇·五〇
七枚物 一〇·五〇
八枚物 一〇·五〇
九枚物 一〇·五〇
十枚物(東) 一三·〇〇
十一枚物 一三·〇〇
十二枚(東) 一三·〇〇

◆縞鋼板 四尺八尺十貫에
五厘厚 一〇·〇〇
七厘五厚 九·五〇
一分厚 九·五〇
一分五厘厚 九·五〇
二分厚 九·三〇

◆眞鍮板 銅板
幅尺二寸長四尺 一枚에
三斤 一八·〇〇
二斤半 一六·〇〇
二斤 一四·〇〇
二斤半 一四·〇〇
하온스 一四·〇〇

◆金屬地金 百斤에
廿八番 一三·〇〇
三十番 一三·〇〇
丁鍋 一三·〇〇
折鍋 一二·〇〇
니켈丸 百斤에 一七〇·〇〇
鉛鋼 一〇〇·〇〇
亞鉛金 丸天泉 八〇·〇〇
古銅線 一〇·〇〇
鑄物地金 一〇·〇〇
生子鉛 三·五〇
棒鉛 一·五〇
丁字鉛 一·五〇

福田又商店 京城支店調

雙虹舞【94】

方仁根 作 / 金奎澤 畵

强潮 (四)

은명이 한참 우는데 어머니가 천봉을업고 들어왓다。잠이든 천봉을 네려서 누여놋는데 딸이우는얼굴을보고 그어머니는 『너왜우니』하고 물엇다。은명은 아무말업시 안저서 눈물만 줄줄흘리엇다。

『아니 너 아버지 생각을하고우니 남편생각을하고우니 굴세우니웅?』

『이집과 터를 뺏긴대요』

『뭐야 그게 난데업시 무슨소리냐』하고 어머니는 펄적뛰엇다。은명은 울면서 모든 이야기를 하엿다。어머니는 눈물도 못흘리고 얼골이 파라케 질리어

『이일을 어쩌면 조흔말이냐』하고 기운이 쭉 줄은 목소리로 말하엿다。그어머니는 급한성미로 애를쓰며

『그럼 이러케 줄키니 안젓소면 어쩌니 네가 그 곽씨한테 가서 사정을하여야지』하고 말하엿다。

『어머니 저는 죽어도 그러기는 실혀요』

『그럼 내가 가서 말하마』

『어머니 제발 그만두서요 가서말슴한대야 소용도업구요 그럴것업서요 다 운이니까 할수업서요』

『아니 그럼 이집을 고스란이 내줘야 올탄말이냐』

『네 그럴수밧게 업서요 아저씨와 면서기와 태식이와 모두들 짜고 우리를 속이고 그런 모양이에요』

『이런 원통한일이 어대잇단말이냐 그래 그런놈들을 가만둬야 올탄말이냐 그래 세상에법도 업단말이냐』

『다 소용업서요 인정도 법도 다 소용업서요 악한사람들과싸우면 뭘해요』

『그래도 나는 차우더라도 이집을 내놀수가 업다 너의 아버님이 얼마나 공드린 이집과 터냐 그걸 빼기면 나는 복통을 해서 죽겟다』

어머니는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엇다。과연 이 가대가 갑스로 론지하면 얼마아니되지마는 오래오래두고 그의 아버지가 공을 드린것은 멧천금보다 더 귀한것이엇다。나무한포기에도 피와땀이 박인것이엇다。

『천봉아비를 나오라고 해라』하고 어머니는 소리첫다。

『나오면 뭘 해요』

사실 은명은 광훈에게 아무말도 하지안흐려고 하엿다。이런 내막을 편지하면 상심만 될터이고 공부만 방해될것이며 나온다고해도 창피를 당할뿐 아무도리가 업는것을 아는데 편지할필요가무어인가 하는것이엇다。죽든지살든지 참고지낼밧게 업다고 생각하엿다。

『어머니 우리 여기를 떠납시다』

『떠나다니 어대로 떠난단말이냐』

『아무대나 가요 이런 고약한 곳에서 살기가실혀요』

『가려면 너혼자 가려무나 그래 살년삼도 치루기전에 혼백상을 모시고 어덕떠난단말이냐 나는 못가겟다 너의 아버지가 못잇친땅을 어떠케 훌훌떠난단말이냐』

은명은 생각하니 그도 그럴듯하엿다。아무리 참괴하드라도 이고향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아버지의 해골이 무친지 얘닯이 못되어 떠난다는것은 자식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엿다。또 다른데로 갈만한 돈도업고 갈을 무슨소용이 잇스며 떠구나 어머니혼자 여기에두고 자기혼자 가버릴수는 절대로업다고 생각하엿다。그러면 할수업시 여기서 오막사리라도 사서 멧해고생해가면서 기다리는수바게 업다고 생각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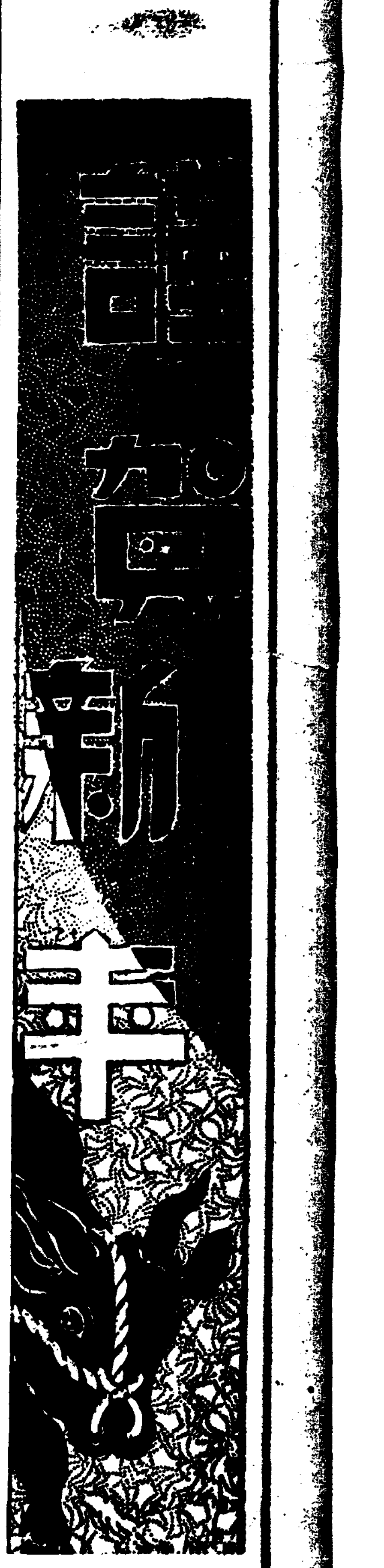
밤이되니 그러지안허도 잠이아니왓는데 더욱 잡이오지아니하고 천가지 만가지 생각이머리속에서 복작거리엇다。아저씨라는이도 윤호도 다 미웟다。그보다도 경수가 더얄미웟다。자기가 잘란체하고 한번뽑내보려는 그심사가곰시도 불쾌하엿다。더구나 태식은 자기에게원한을품고 이런짓을하니 퍽비열한사나이갓고 분하기가 한량업섯다。혼인을 거절하엿다고 그것을 마음에색여가지고 약점을이용해서짓밟고 모욕하는것을당할때 은명은 원통하엿다。은명은 왼세상사람이 다자기를 배척한듯 외로웟다。그리고 모든사람이 다미웁고 원망스러웟다

『괴로운 세상이다』

이러케 은명은 속으로 부르지젓다。

은명은 장차 이아프로 어떠케 살아나갈지 전보다도 더걱정스러웟다。하로하로 먹는것보다도 당장누구의 행랑방으로는 갈수업고 다만 잠간이라도 의지하여야할터인데 무슨돈으로하나하고 은명은 백천가지 방법을 밤새도록 궁리해보앗스나어느길이나 꽉꽉막히고 환이터질길이업섯다。은명은 숨이답답하고 막힘듯하여 정신이뒤집혀 미칠듯미칠듯하엿다

『이러케 애를쓰는것을 아는사람이 하나도업다 다만나만 아는것이어다』하는생각을하니 더욱 답답하엿다。누구에게나 의론하고 위로라도바드면 퍽 조흘것가탓다



京城府[illegible]町四ノ三 セメント空紙袋 京城買入商 南洪商店

×光線科 物療科 增設 各科大衆的輕費診療 京城府貫鐵町一三五 大衆醫院 電話光五二二四(夜間)

鍾路三丁目九 白花商會 電話一五九七番

京城昌信町三九七番地 建築實資 朝鮮木材 蓋瓦土管 製造販賣 李允天 電光(2)二九四二番 (2)〇七八番 瓦工場 京軌廣壯線 九宜里驛前 自宅 京城府新設町一三二番地

京城府崇仁町一七三番地 秦漢得 電光一〇一八番

京城府竹添町三丁目一一五 鮮滿興業株式會社 電話光(2)七三八番

京城府昌信町二〇八番地 興仁布木商店 主 許泰根 電光(3)二七七二番

長津

下碣警察署 職員一同

鐵道用枕木 原木各種 九太各種 落葉松電柱 諸建築用材 製材營業 貿易米穀
作業直營 (都) 長津郡新南面下碣驛前 下碣製材所

密陽

密陽郡密陽邑三門里 密陽酒造株式會社 社長 河駿錫 支配人 河輪鶴

慶全南部線洛東江驛前 三浪酒造場 李完熙 電話三浪 振替口座

密陽郡府北面退老里 李翼成

密陽郡上南面禮林里 朴乙熙

密陽郡山內面佳仁里 孫基正

密陽邑內二洞 穀物貿易商 朴五作

密陽郡府北面退老里 醸造業 李宅衡

密陽 農蠶學校 / 公立尋常高等小學校 / 普通學校

密陽邑 穀物貿易 各種ゴム靴 正信商會 五兒ゴム靴商會 金李德

山內面松旨里 山內公立普通學校長 科厦

密陽邑三門里 密陽產業組合 職員一同

丹場面丹場里 許準

義州

義州郡玉尙面棠木洞 信盛釀酒商會 崔春鳳 田澤貞雄

松長面長金敬崙外 職員一同

批峴金融組合永山支店 理事 李浩白

義州邑內 洋品百貨 天植商店 主 朴天植

松井公立普通學校

鳥致院

鳥致院 濟衆醫院 院長 李殷柱

鳥致院 同仁醫院 院長 金鼎熙

价川

平南价川市場通 价川和信連鎖店 主 李興成 電話一二四番

平南价川邑內 龍成絹織所 主務 劉福龍

甲山

甲山邑內 長平麵屋 主 柳斗學

甲山邑 大同商會 金瑒在商業部

甲山邑內 司法書士 金炯鳳

甲山邑內 茂林食堂 主 林秉斗

咸南甲山邑 金性濟商店 支店 惠山線鳳頭市

安東縣

安東縣六番通八丁目 委託販賣 穀物貿易 運送通關 釜大成號 日滿電六八二一番

安東縣三番通七丁目 滿鮮特產委託販賣 原木製材 運送通關業 義成商會 (全)義昌運送通關部 主 金炳浩

安東取引所 取引人組合

枇峴

京義線枇峴驛前 織物 雜貨 ゴム石油 日用雜貨 枇峴農民共生組合

天安

忠淸南道天安郡天安邑南山町四七二ノ一 忠淸貨物自動車株式會社 職員一同 電話三七番

天安郡歡城面 職員一同

奉天

奉天西塔大街三丁目 綿絲布絹織物洋品雜貨 學用品文房具膠皮 靴海産物委託及郵便販賣 順興商店 電話(2)二三七八番 振替新京三五二一番

奉天小西邊裡斗母宮 滿洲測量學院 院長 經濟學士 李貫熙 電話(2)三〇〇五番

漢川

平壤府新陽里一七〇 普通門入口バス停留場前 卓子椅子 和洋家具 衣欌門 製造販賣 德圓木工社 李炳斗 洪觀洙 金淵浩 承基業

平壤府驛前 合資會社 平安自動車商會 社長 金徠鉄 支配人 山本磯七 電話長六八六七〇番

平壤

平壤府黃金町 柳京醫院 電話二二〇四番

平壤府敬言里 綢緞布木商 鄭基釵商店 電話二三二四番

南原

南原郡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南原 唯一 明治旅館 主 黃智亭

南原麵子株式會社 南原 魯瑛順